

앞으로의 100년은 지나간 100년에서...

미래를 향한 100년, 탄허

오대산 월정사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8천원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2013년)을 맞아 한국불교학회와 오대산 월정사가 주관한 '탄허 대중사 탄신 100주년 기념 2012 추계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을 보완하여 오대산월정사가 펴냈던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서 1' <되돌아본 100년, 탄허>에 이은 두 번째 기념서이다.

이번 책 역시 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하여 엮은 것으로, 이번 책은 '탄허 대중사의 인재양성과 교육이념의 시대정신'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탄허 스님의 인재양성과 교육이념의 시대적 의미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탄허 스님은 화엄경과 관련된 방대한 저술을 집대성하고 번역하여 <신화엄경합본>을 출간하는 등 한국불교 역경사에 가장 큰 불사를 이뤘다. 이는 근현대 불교사에서 개인이 행한 역경불사로는 최대의 업적이며, 이는 승가교육과 재가교육의 기틀이 되었다.

기념서 1 <되돌아본~>의 이은 2권

자현 스님 외 5인의 논문 실어

인재양성과 교육이념 재조명에 의미

한국불교 교육 변화 모색할 기회제공

책에서는 이처럼 20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의 일원이자 유불선을 통달한 탄허 스님의 인재양성과 교육 이념을 깊이 있게 재조명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승가 교육과 신도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또 한 번의 기회다. 1권이 '되돌아본 100년'이었다면 이번 책은 '미래를 향한 100년'을 모색하는 책이다.

총 6장 중에서 1장 '탄허 스님의 미래인식과 현대사회의 다양성'은 자현(조계종 교수)이 탄허 스님의 논문으로 탄허 스님의 '미래인식'에 대한 탐구다. 책은 탄허 스님이 1960~80년대 초반 경제성장이라는 화두와 군부독재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철학으로 인정받은 <주역>의 사상을 바탕으로, 동양학과 구한말의 신종교적인 관점까지 아우른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나라와 민족에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말한다.

2장 '탄허 스님의 구도과정과 인재양성'은 윤선태(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의 논문으로, 탄허 스님의 교육관과 인재양성에 대한 철학을 짚어주고 있다. 탄허 스님은 일찍이 "요즈음의 학문은 기능에만 치우쳐 있다.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며 근대의 학문과 교육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그가 말한 '종지'란 무엇이었을까. 책은 근대를 극복하

고 넘어가려는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탄허 스님의 일갈이 미래에 끼친 여파에 대해 적고 있다. 또한 이런 탄허 스님의 사상의 어디에서 왔는지, 스승 한암 스님을 비롯한 그의 사상의 배경에 대해 적고 있다.

3장 '탄허의 교육이념과 그 정신'은 김광식 동국대 문화학술원 특임교수의 논문으로 유불선 통합에서 나온 그의 교육 이념과 그에 담긴 정신을 추출하고자 했다.

4장 '출가 이전 탄허의 전통학술 수학과 구도입산의 제작'은 이원석(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의 논문으로 탄허 스님의 출가 전 환경과 그의 스승 이극종의 학통을 재검토하고 전통학술의 수학을 살펴보는 동시에 구도입산의 제작을 고찰하려 했다. 탄허 스님의 가계와 함께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부친 김홍규와 그의 보천교 활동을 규명하고 기존에 면암 최익현과 간재 전우를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는 이극종의 학통을 재검토했으며, 마지막으로 탄허 스님이 전통학술을 수학하는 과정과 내용을 분석했다.

5장 '탄허의 경전번역의 의의와 강원교육에 끼친 영향'은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논문이다. 탄허 스님은 20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이다. 선원인 오대산 상원사 출신으로 <육조단견>과 <보조법어>, <신화엄경합본>, <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사집> 등 전통강원의 텍스트를 완역, 간행하는 등 근현대 한국불교 역경사 및 교육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책은 탄허 스님이 이와 같이 많은 경전을 번역하게 된 동기와 목적, 배경, 관점, 문체, 저본의 특징, 그리고 그의 역경이 강원교육에 끼친 영향과 의의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했다.

6장 '탄허 백성의 삼현관과 불교관'은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논문으로 탄허 스님의 <주역선해> 역주와 <노자도덕경> 선주 및 <장자남화경> 강술 역해를 최근의 학문적 경향인 융복합시대 이전에 이미 불도유를 넘나들며 횡단적 삶을 살았던 탄허 백성의 삼현관(三玄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불교는 조선조 500년 동안 승유역불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는 암흑기였지만, 불교적으로는 오히려 부흥기였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유교를 제거하고, 일본의 불교적인 정서는 우리나라의 불교에 관용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의한 유교의 소멸과 불교유호는 불교경제력이 단기간에 회복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조선불교는 일본불교의 영향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낸 탄허 스님의 미래 대한 해법은 다름 아닌 교육이었다. 종교에서의 가장 근본은 정신이며, 이와 같은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은 교육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스님께서는, 스승인 조계종의 조대 종정 한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역경 작업과 교육 사업에 매진했다. 스승을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이제 막 어두운 터널을 나온 불교에 빛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시들어가던 우리 불교의 꽃을 다시 피우고자 했던 것이 스님의 일이었다면, 스님의 뜻을 잊지 않고 유업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후학의 도리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우리는 아직도 가신 스님을 붙잡고 놓아줄 수 없는 것이다. 책은 앞으로의 100년이 지나간 100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박재원 기자

한·중·일이 함께 바라본 한국 차문화사



다도와 한국의 전통 차문화
노무라미술포럼 엮음
아우라 펴냄
1만8천원

책은 한·중·일 공동연구로 조망한 한국 차문화사를 다루고 있다. 총 10편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한국 차문화사, 고려 이색의 다공에 나타난 풍류 미의식, 고려시대 청자와 차문화, 남송과 고려의 차문화 교류, 조선 후기의 차문화 개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책을 기획한 노무라미술포럼은 조선 다안과 한국 현대 작가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해 왔는데, 올해 미술포럼이 한국 차문화에 초점을 맞춰 발행한 연구지의 한국어판이다.

첫 번째 글 '한국차문화사'에서 김상현(동국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한반도에는 7세기 신라 선덕여왕 때부터 차가 있었고, 신라 흥덕왕 3년(828)에 김대립이 당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은 뒤부터 차가 널리 퍼졌다. 고려시대에는 차가 왕실 및 문인, 승려 등 귀족층에 널리 수용되어, 다도에 깊은 이해를 가진 다인(茶人)이 등장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차문화는 불교와 더불어 쇠퇴했지만 조선 후기 초의에 의해 다시 중흥한다. 일제 때 일본식 다도가 침투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허백련, 최범술, 박영희 등이 차문화를 이끌었다."고 한국 차문화의 기원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글, 장영선(한국차문화 연구소) 소장의 '고려 이색의 다공에 나타난 풍류 미의식'은 고려 후기 이규보와 이색을 중심으로 성행하게 되는 한국의 다공문화에 대한 것으로, 이색의 시(詩)를 중심으로 다공에 나타난 풍류 미의식을 살펴보고 있다. 다공(茶供)이란 차를, 다사(茶事) 전반, 행다(茶行), 다과(茶果) 등을



조선 후기 차문화를 중흥시킨 초의 스님 동상

총괄하는 용어다.

세 번째 글 '고려시대 청자와 차문화'에서 장남원(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고려는 한반도의 독자 역사에서 기술적, 조형적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룬 시기로, 음식문화의 발달은 청자 및 백자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 차문화는 청자의 기종과 기형, 다양한 계층과 소비자에 따른 다양한 기명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며 고려시대였다. 제다를 포함하여, 새로운 음료의 하나인 차의 유행이 도자기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네 번째 글, 관정평(저장농림대학 인문문화원) 교수의 '남송과 고려의 차문화 교류'에서는 관련 문헌들을 통해 드러나는 고려시대 차문화 전체 모습을 그려보고, 아울러 송조와 교류하는 가운데서도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조선시대 차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섯 번째 글, 정민(한양대 국문과) 교수의 '조선 후기의 차문화 개관'에는 잡자던 조선 차문화를 깨운 이운해의 '향차 제다법'과 그로부터 40년 뒤 이덕리가 <동다기>에서 주장한 차의 가치와 효능, 차생산, 차무역 등에 관한 이야기, 차문화의 중흥을 일으킨 정약용의 제다법, 정약용의 제차 초의 스님과 초

의 스님의 도반 추사 김정희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여섯 번째 글, 최관(고려대 일본학과) 교수의 '김여철과 후손들의 삶'에서는 한림학사였던 김시성의 아들로 태어나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 와카타나오카타(脇田直寛)라는 이름으로 일본 사무라이가 되었으며, 오사카 전투에서 세운 무훈을 인정받아 카가번의 가신이 된 김여철(金如鐵, 1585~1660)과 학문과 다도의 명문가가 된 그의 후손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김여철이 만든 교구센원(玉泉園) 정원의 다실에서는 지금도 다회가 열린다고 한다.

일곱 번째 글, 박종준(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의 '한국의 다성 초의선사'는 대흥사에서 전해져 오던 사원차를 발전시켜 조선 후기 차문화가 중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동다송>의 저술로 차에 대한 이론 정리와 선차 복원의 초석을 놓은 '한국의 다성(茶聖) 초의선사'에 대해 설명했다.

여덟 번째 글, '한·중·일 차문화 교육의 비교 연구'에서 김순진 계명대학교 차문화연구소 소장 및 특임교수는 "차문화 교육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문화적 측면을, 중국은 차의 산업적 측면을, 일본에서는 전통 다도의 계승과 발전, 차 재배 전문가 육성이 강조된다."며 학문적 정체성, 농업 및 산업적 측면의 교과과정 개발 등 한국 차문화 교육을 발전시킬 방안을 제안했다.

아홉 번째 글, 타니 아카리 노무라미술관 관장의 '한국과 일본의 차문화'에서는 일본의 다도인 차노유(茶の湯)의 확립에 미친 조선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특히 한·일 차문화 교류의 하나로서 '고려다완'과 '통신사 접대 다례'에 대하여 소개한다.

열 번째 글, 정은진(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학예원의 '일본에서의 한국 차문화 연구사'에서는 신라 및 고려의 음다 습관, 조선시대 다례, 한국 차문화의 일본 다도와의 관계를 일본인이 썼거나 일본에서 발표된 논고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한국 차문화 연표>를 작성해 첨부했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ul.com

만남에서 헤어짐으로, 인연의 무상함 그려

떠나는 배

진관 스님 지음 | 초롱 펴냄 | 8천2백원



"도술천 배원궁에 래야날 솟아 올랐으니
내 이제 인간 세상에 버려질 배에 올라
천만년 살아 노래할 한라산 김씨 품으로
도술천 미륵님의 가르침을 받아 안고

내 이제 인간 세상에 태어날 인연 따라
억만년 살아 설법할 백록담 이제 품으로
그곳 김씨 가문 장자의 아들로 래야
부처님을 찬양하는 사문이 되거라"
-도술천궁에서 내려올

9월 9일 원력에 든 무진장 스님의 제자인 진관 스님이 떠나간 스승을 추모하는 시집을 냈다.

"해명 무진장 대중사님을 생각하면서 전 생애에 대하여 시로써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한 사람이 출가하여 수행자 교단에서 최고 지위인 대중사까지 산 일생을 시로 조명한다는 것은 한편 후학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에는 진관 스님이 스승을 그리워하며 쓴 107편의 시와 전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 스님을 그리워하는 스님들의 시도 함께 실려 있다.

진관 스님이 무진장 스님을 처음 만난 것이 스무 살 때라고 한다. 스님은 떠나간 스승을 그리워하며 한 권의 시집을 올리게 된 것을 전생의 지은 인연의 고리라고 생각하며, 이제 '만남'에서 '헤어짐'으로 따로 선 인연의 무상함을 시를 통해 그리고 있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6 ~ 11/1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진	한겨레출판사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5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6	알고 보면 괜찮은	미가	불광출판사
7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
8	어려울 때 힘이 되는 8가지 명상	책 콘필드	불광출판사
9	인간세기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비움과소통
10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안경애	운주사

*불서추천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원영대사의

금강경 강의

원영 권오 지음, 박병규 역주/신국판/381쪽/값16,000원

세친보살의 27단에 의거한 새로운 강의!

근세 중국불교의 대선지식 원영 대사의 화엄과 천태, 선과 정토를 금강반야의 종지로 회통한 탁월한 해설!
방대한 불교 교학과 수행을 하나로 융합한 해설은 단순히 경전 해설에 머물지 않고 불교의 정수를 담은 '교과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말 능엄경

우리말 능엄경

함정원 풀어쓰기/신국판 양장/520쪽/값 25,000원

능엄경은 불교의 핵심을 압축해서 담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다!
'진실로 부처님 일대사교의 정수요,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비밀스런 핵심' (-우유지옥대사)
출가·재가를 막론하고 '능엄경을 한 번 본 뒤로는 세상의 잡동사니 책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온 능엄경에 대한 알기 쉬운 우리말 번역 및 해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sbks